

□ '98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

대교협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원광대 승산기념관에서 '98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국 187개 대학의 총장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대학 재정난 극복과 대학 운영 체제의 혁신”을 주제로, 대학사회의 현안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시대의 대학정책의 방향과 과제(이상주 한림대 총장) △정보화 시대의 대학정책 방향과 과제(노성만 전남대 총장) △대학의 재정난 극복 방안(김재규 영동대 총장) △대학의 재정난과 경영합리화(이종훈 중앙대 총장)

또한 대학 총장들은 현재의 국난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대교협에서 대학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제시한 과제는 ‘대학입학 무시험 전형 확대 및 예약입학제 도입’, ‘고학력자 실업 대책 추진’, ‘대교협 인증제 실시 방안’, ‘대학총장 직선

제 개선’, ‘교수 업적평가제 및 교수연봉제 확대 실시’, ‘학부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교과과정 도입’, ‘대학 분쟁조정위원회 개설’ 등이다.

□ 대학·전문대학의 시범

직업교육 훈련과정 실시

대교협은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대학·전문대학의 우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의 개발과 개설을 촉진하고 이를 향후 실업자 직업교육 훈련과정의 표준모델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실시한다. 대교협은 시범훈련 교육기관의 선정과 평가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 자민련 정책위원회와

업무 협의 간담회 실시

대교협은 6월 24일 자민련 정책위원회에서 정일영 제3정책조정위원장 및 교육전문위원들과 업무 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 대학입시지원 컨소시엄

운영 적극 검토

대교협은 현행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복수지원제를 활성화하면서 행·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지방 1개 대학만 합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1999학년도 입시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시범 실시하고, 2001학년도 정시모집시에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대학 현안문제 연구 실시

대교협은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학 현안문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될 연구과제는 ‘대학재정 국고지원 모형 개발연구’, ‘국내·외 대학 평가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석’, ‘대학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분석’, ‘대학간 협력과 교류활성화 증진을 위한 연구’,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방향 연구’ 등이다.

□ ‘대학 신입생 선발의

자율성 확대 방안 연구’

제2차 연구자 회의 개최

대교협은 6월 23일 ‘대학신입생 선발의 자율성 확대 방안 연구’ 제2차 연구자 회의의를 개최하여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